

# 브릿지 레소토 프로젝트 종료보고서

2018년 9월

『브릿지 레소토 프로젝트 종료보고서』(Bridge Lesotho Project Report)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독립 출판물로서, 브릿지 레소토 프로젝트의 협력 파트너인 유네스코레소토위원회와 공동으로 작업한 결과물입니다. 이 출판물에 사용된 명칭과 소개된 자료 등은 특정 국가나 영토, 도시, 지역, 기관의 법적 지위 또는 그 국경이나 경계의 획정에 대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 및 의견에 대해서는 아래 2개 유네스코 국가위원회가 공동으로 책임을 갖습니다. 이 보고서는 대한민국 교육부의 지원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레소토위원회 공동 발간



### Bridge Lesotho Project Report 바로 가기

본 보고서는 2018년 브릿지 레소토 프로젝트 종료보고서(Bridge Lesotho Project Report)의 한국어 번역본입니다. 원문은 위 QR 코드를 통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개발협력본부 브릿지팀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유네스코길) 26, 우편번호 04536  
이메일 | [sdgs.kncu@unesco.or.kr](mailto:sdgs.kncu@unesco.or.kr)  
홈페이지 | [www.unesco.or.kr](http://www.unesco.or.kr)

한국어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021  
펴낸이 | 한경구  
감수 | 김승혜, 김지현, 서정아, 주준호  
번역 | 알바트로스 김용범  
디자인 | 보더랩 김기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간행물등록번호 | ED-2021-RP-8  
무단전재 및 무단복제를 금함

## 목차

<b>I. 서문</b>	03
<b>II. 배경</b>	04
1. 국가 개요	04
2. 레소토의 교육 현황	04
<b>III. 브릿지 레소토 프로젝트 개요</b>	08
1. 브릿지 레소토 프로젝트 소개	08
2. 레소토 브릿지 지역학습센터 소개	13
<b>IV. 성과</b>	14
1. 브릿지 레소토 프로젝트의 역사	14
2. 양적 성과	15
3. 브릿지 레소토 프로젝트와 지속가능발전목표, 아프리카연합 의제 연계	16
4. 지역학습센터의 시사점과 성과	17
<b>V. 교훈</b>	26
<b>VI. 감사의 말씀</b>	30
<b>◆ 부록</b>	32
1. 브릿지 프로젝트 활동가 및 프로젝트 매니저 명단	32
2. 인터뷰	33



## I. 서문

브릿지 레소토 프로젝트는 레소토에서 2010년 10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시행되었다. 동 프로젝트는 지역학습센터(CLC)의 설립을 통해 풀뿌리 차원에서 지역민의 활동을 지원하였는데, 설립된 지역학습센터는 모두를 위한 교육(EFA) 목표와 양질의 교육에 초점을 둔 지속가능발전목표 4번 (SDG 4)의 국가적 달성을 지원하고자 비형식교육 부문에서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개발 활동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브릿지 레소토 프로젝트는 또한 지역사회와 지역사회 내 지도자들을 참여시켜 이들에게 비형식교육 프로그램의 책임 권한을 전적으로 부여하기도 했다.

브릿지 레소토 프로젝트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비정부기구를 통해 운영되었는데, 한국의 젊은 활동가들도 현지에 파견되어 지역사회와 직접 협력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KNCU)는 2013년 10월 23일 유네스코레소토위원회(LNCU)와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해당 양해각서에 따라 브릿지 레소토 프로젝트는 지역학습센터 건립을 통한 해당 지역사회와의 직접 협력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지역학습센터는 영유아 보육 및 발달, 성인문해교육, 직업기술훈련 등에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II. 배경

### 1. 국가 개요

레소토 왕국은 사방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영토로 둘러싸인 작은 산악 국가이다. 왕국의 영토는 풋힐(Foothills), 센큐밸리(Senqu Valley), 로우랜드(Lowlands), 그리고 하이랜드(Highlands)의 4개 지역으로 나뉘며, 이 4개 지역은 다시 10개 구로 나뉜다. 1966년 영국의 지배로부터 독립한 레소토 왕국은 국왕이 국가 원수인 입헌 군주제를 채택했으며, 정부는 총리가 운영한다. 프로그램 진행 당시 레소토 정부는 2017년 6월 3일 선거에서 승리한 4개 정당의 연합이 이끌고 있었다.

레소토는 최빈국(LDC)으로 분류된다. 2016년 인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레소토의 인구는 약 200만 명으로, 1인당 국내 총생산은 1,160달러다. 2018년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레소토의 경제 성장률은 약 3%로, 섬유 제조업 및 농업이 이를 주도했다. 섬유 제조업 실적은 미국 달러화 대비 랜드화(Rand)의 가치 하락에 영향을 받았으나 농업은 2015년과 2016년의 극심한 가뭄 이후로 강력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실업, 특히 대졸자 및 청년 실업은 레소토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로, 국가의 전체 실업률은 24%에서 28%에 달한다. 또 다른 주요한 당면과제로는 불평등과 빈곤을 꼽을 수 있다. 2016년 추정치에 따르면 레소토 인구의 57.8%가 빈곤선 아래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레소토의 가장 큰 도전은 무엇보다도 HIV/AIDS(면역결핍증)와 결핵의 동시확산이다. HIV 유병률은 성인 인구의 25%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 높은 HIV와 결핵 비율은 극심한 불평등과 빈곤을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2. 레소토의 교육 현황

#### i. 영유아 보육 및 발달(ECCD)

레소토 정부는 영유아가 인간 발달과 평생학습에 있어 중요한 바탕을 형성함을 인식하고 있다. 레소토에서 영유아 보육 및 발달(Early Childhood Care and Development, ECCD)은 세 가지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다:

a) 자택기반 서비스(home-based service)는 지역사회 활동가들의 아동 돌봄을 통해 이루어진다. 정부는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의 지원을 받아 교수학습자료와 현장 연수를 준비하고, 음식을 제공하기도 한다. 전국의 57개 가정방문 서비스 센터에 744명의 아동이 등록되어 있다 (ECCD 2018).

b) 센터기반 유치원(center-based pre-schools)은 주로 민간 소유로 부분적으로만 정부 지원을 받는다. 전국의 센터기반 유치원에는 약 4만 500명의 아동이 등록되어 있다(ECCD 2018). 일부 유치원은 세계식량계획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레소토 교육훈련부(MoET)는 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현장 연수를 제공한다.

c) 유치원 1학년 수업(Reception classes)은 5세 아동에게 1년간 전기 기초교육 준비 과정을 제공한다. 교사 급여, 수업자료, 아동 급식은 정부 지원을 통해 이루어진다. 전국적으로 245개소에서 5,527명의 아동이 해당 수업을 받고 있다(ECCD 2018).

레소토 영유아 보육 및 발달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는 '충분한 영양 공급을 받은 건강한 아동들이 모든 발달 단계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학교에 갈 준비를 마쳐 레소토 왕국의 생산성 있는 시민이 되도록, 임신 전 단계부터 5세까지의 시기에 있는 레소토의 모든 아동과 그 부모, 보호자에게 포괄적이고, 지속적이고, 문화적으로 적절한 양질의 참여 지향적 지속가능 영유아 보육 및 발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2013년 영유아 보육 및 발달 통합 정책). 해당 정책 아래에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전략이 우선시된다.

전략 1.	부모와 영유아를 위한 산전, 산후 서비스의 개선 및 확대
전략 2.	총체적 아동 발달 보장을 위해 0-3세의 영유아와 부모를 우선하는 영유아 보육 및 발달 센터 & 서비스 개발
전략 3.	발달 지연, 영양실조, HIV/AIDS(면역결핍증) 또는 장애가 있는 취약 아동이 영유아기 개입(early childhood intervention) 서비스를 받도록 보장
전략 4.	3-5세 아동을 위한 취학 전 교육 서비스 개선 및 확대, 가정-유치원-초등학교로의 전환 과정 개선
전략 5.	아동과 부모, 특히 취약 아동의 권리 증진 및 보호
전략 6.	모든 영유아 보육 및 발달 서비스를 위한 교사 사전 및 현장 연수 시스템 확대 및 개선
전략 7.	정책 모니터링, 평가, 행동 연구 및 후속 계획을 위한 구조와 계획의 설계와 실행
전략 8.	정책 홍보 및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연간 계획의 개발과 실행

2005-2015 레소토 교육부문 전략계획은 0-6세 사이의 모든 아동이 2015년까지 통합 영유아 교육을 받을 것을 규정했다. 그러나 영유아 보육 및 발달 수업에 대한 접근성 제한으로 인해 레소토 아동의 영유아 보육 및 발달 수업의 실제 등록률은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보육 및 발달 교육 기회의 격차는 농촌 지역에서 더 크게 나타나며, 수업의 낮은 질과 기반시설 및 설비 부족도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이다. 2014년에는 5세 미만 아동의 33%가

발육 부진을 겪고 있으며, 59개월이 된 아동의 절반 이상이 빈혈을 앓고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 (UNICEF 2016).

교육훈련부는 현재 전국적으로 영유아 보육 및 발달을 추진하고 확대하기 위해 규제를 목적으로 모든 유치원의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영유아 보육 및 발달 자원 할당의 효율성을 개선하면 정부는 가정방문교사의 급여 및 농촌과 산간 지역 아동의 학교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한편, 영유아 보육 및 발달 서비스의 질을 올리기 위해 교육훈련부는 UNICEF와 협력해 교사 대상 현장 연수를 지원하는 등 아동에게 최선의 양육 및 취학 전 교육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성인문해교육(ALE)

레소토는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국가 발전에 있어 교육이 갖는 역할이 막대함을 인식하고 있다. 이는 레소토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레소토는 모든 사람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다음과 같은 정책을 채택한다: a) 교육은 인간의 인격과 존엄성을 충분히 개발하고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b) 초등교육은 의무교육으로 모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c) 기술직업교육을 포함한 중등교육은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을 통해 이루어져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d) 고등교육은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을 통해 이루어져 능력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e) 기초교육은 초등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완료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가능한 한 장려되거나 강조되어야 한다”(레소토 헌법, 28조).

레소토에서 성인문해교육은 기존의 형식교육 바깥에서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 등 특정 인구집단에 교육을 제공하는 모든 활동을 일컫는다. 성인문해교육은 교육에 대해 보다 주위 환경에 기반하고, 지역사회와 관련된 학습자 중심의 접근법을 취한다. 이와 같은 접근방식은 1833년 레소토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현지인들에게 사무직 직업을 준비하기 위한 교육을 제공했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현재 문해교육은 비형식교육 분야의 다른 이해관계자들뿐만 아니라 교육훈련부의 지원을 받는 레소토 원격교육센터(LDTC)를 통해서도 제공되고 있다.

레소토 원격교육센터는 교육훈련부 산하 부서로, 학습 후 프로그램(Learning Post Programme)으로 알려진 성인 문해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취약 청소년과 성인의 교육을 촉진할 의무를 가진다. 해당 프로그램은 마을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학습의 촉진을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선출한 자원봉사자인 학습 후 관리자(Learning Post Administrator, LPA) 한 명이 15명 이상의 학습자를 담당하고 있다.

학습 후 프로그램을 운영할 자금은 정부와 개발 파트너들이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은 레소토의 10개 구 중 9개 구에서 비정부기구와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운영되는데, 예를 들어 10번째 구 모코틀롱(Mokhotlong)에서는 레소토 비형식교육협회(LANFE)가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레소토 원격교육센터를 비롯한 기타 이해관계들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등록된 총 학습자 수는 8,002명이며, 특히 고지대에서는 여성 학습자보다

등록자 수 통계(EMIS-MOET 2016)

프로그램	남성 학습자수	여성 학습자수	총 학습자수
문해 및 수리 교육	6,420	1,582	8,002

남성 학습자의 수가 더 크다. 유네스코 통계연구소(UIS)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25-64세 인구의 문해율은 75.53%로, 여성(85.46%)의 문해율이 남성(65.06%)의 문해율보다 더 높았다.

### 직업교육훈련 (TVET)

레소토 정부는 1982년 교육훈련부를 통해 교육 부문 특별전담조직을 구성해 교육 체계를 기획하는 데에 지침이 될 정책 문서를 만들었다. 이 특별전담조직은 현지 및 지역 시장에 경쟁력과 시장성을 갖춘 기술을 연마한 노동력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훈련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기술직업훈련부(TVD) 설치를 권고했다.

기술직업훈련부는 1984년 제정된 관련법에 따라 레소토의 기술직업교육을 주도하고 있는 교육훈련부 산하의 포괄적 규제기관이다. 교육 부문에서 기술직업훈련부의 역할은 교육과정 개발, 점검 및 평가, 프로그램 및 기관 인증, 선행학습교육(PRE)을 위한 직업 시험 관리, 워크숍 및 장비 지원,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학교 직원 교육, 그리고 기술 수요에 대한 지속적 평가 등을 통해 기술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해당 부서는 또한 산업학습 프로그램에 학습자를 배치하기 위해 산업체(호텔, 게스트하우스, 자동차 수리 작업장)와도 연계하여 협력하고 있다.

현재 레소토에서 교육훈련부가 기술직업훈련부서를 통해 조사하고 점검하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은 베르나다(Bernarda) 가정경제학교, 비숍 알라드(Bishop Allard) 직업학교, 르로알렝(Leloaleng) 기술연구소, 세인트 엘리자베스(St. Elizabeth) 기술연구소, 세인트 메리(St. Mary) 가정경제학교, 타바체카(Thaba-Tseka) 기술연구소, 그리고 가톨릭 종합전문대학(Catholic Comprehensive Community College)으로 총 7곳이다. 이들 교육기관은 주로 초등학교 졸업시험(PSLE) 및 중등교육 졸업인증시험(JC) 이후의 과정을 제공한다. 또한 자율 기술직업학교인 레로톨리 폴리테크닉 학교(Lerotholi Polytechnic School)는 졸업인증시험 후 과정 몇 개에 더불어 주로 일반중등교육 졸업인증시험(LGCSE) 이후 과정을 제공한다. 레소토의 기술직업훈련 분야에는 집계가 안 되는 사설기관들도 있으며, 전통적인 비인증 도제 형식의 무형식 훈련(informal training)도 존재한다.

- 1) PSLE(초등학교 졸업시험)는 전기 중등교육 이전 7년간의 교육 후 치러진다.
- 2) JC(전기 중등교육 졸업인증시험)는 전기 중등교육의 마지막에 치러지는 시험이다.
- 3) LGCSE(레소토 일반중등교육 졸업인증시험)은 후기 중등교육의 마지막에 치러지는 시험이다.

# III. 브릿지 레소토 프로젝트 개요

## 1. 브릿지 레소토 프로젝트 소개

유네스코한국위원회(KNCU)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모두를 위한 교육(EFA) 이니셔티브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는 것에 기여하고자 2010년 브릿지 아프리카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브릿지 레소토 프로젝트는 아프리카에서 시도된 첫 번째 사업으로, 현장에서 양질의 비형식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시작되었다. 지역민들의 교육 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지역사회 중심지로 기능하는 지역학습센터(CLC)를 설립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핵심 중 하나였는데, 브릿지 레소토 프로젝트도 지역학습센터 설립 이후로 지역사회의 맥락에 더 적합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었다.

2010년 프로젝트 시작 당시, 한국에서 협력국으로 파견된 브릿지 프로젝트 활동가들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현지인들과 함께 문해 교육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문화와 수요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러한 문해 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불가능했기에, 활동가들은 평균 2년 정도 해당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그 지역의 삶의 양식, 문화와 교육 수요를 파악해야 했다. 이러한 기간을 거치며 활동가들은 교육 프로젝트를 시작하기에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쌓았고, 프로젝트 역시 이에 맞춰 조정되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교육 프로젝트의 기획과 실행을 위해 브릿지 프로젝트 매니저들이 활동가를 대신해 레소토에 파견되었다. 유네스코레소토위원회는 이들 프로젝트 매니저들에게 사무공간을 제공했고, 이들과 협력하기 위해 브릿지 국가위원회를 설립했다.

대한민국 교육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자금과 한국의 개인, 학교, 단체, 기업의 기부금으로 구성된 프로젝트의 예산은 2010년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했다.

브릿지 레소토 프로젝트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유네스코레소토위원회 간의 굳건한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레소토에서 실행되었다. 지역학습센터는 소외된 지역사회에 (1) 영유아 발달(ECD); (2) 문해교육; (3) 직업기술훈련에 초점을 맞춘 비형식교육을 제공했다.

지역학습센터가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특히 관련 정부 관료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었다. 레소토의 교육적 맥락에 부합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은 교육 담당 정부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더욱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또한 「릴롱웨 성명」(Lilongwe Communiqué)에 따라 레소토 브릿지 국가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브릿지 레소토 프로젝트의 운영 원칙에 따라 각 센터에 독자적인 지역학습센터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운영위원회는 지역 당국의 대표자들, 교사들, 지역사회 구성원들로 이루어졌고, 위원회의 위원들은 정기적으로 모여 지역학습센터가 직면한 문제나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된 과제들을 다루었다.

### i. 근거

브릿지 레소토 프로젝트는 교육훈련부 산하 기구인 유네스코레소토위원회의 현지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2010년부터 유네스코레소토위원회는 모할레스후크(Mohale's Hoek)에

리피링(Liphiring) 지역학습센터를, 타바보시우(Thaba-bosiu)에 하무추(Ha-Motsu) 지역학습센터를, 마세루(Maseru) 구에 하테코(Ha-Teko) 지역학습센터를 건립해 브릿지 레소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구현해냈다.

브릿지 레소토 프로젝트는 교육 분야에서 레소토가 직면한, 교육의 기회 및 질에 관련한 몇 가지 주된 이슈들을 시의적절하게 다루었다. 또한 프로젝트의 완전한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주요 정부 부처와 부서들도 정책 제언 등으로 기타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 ii.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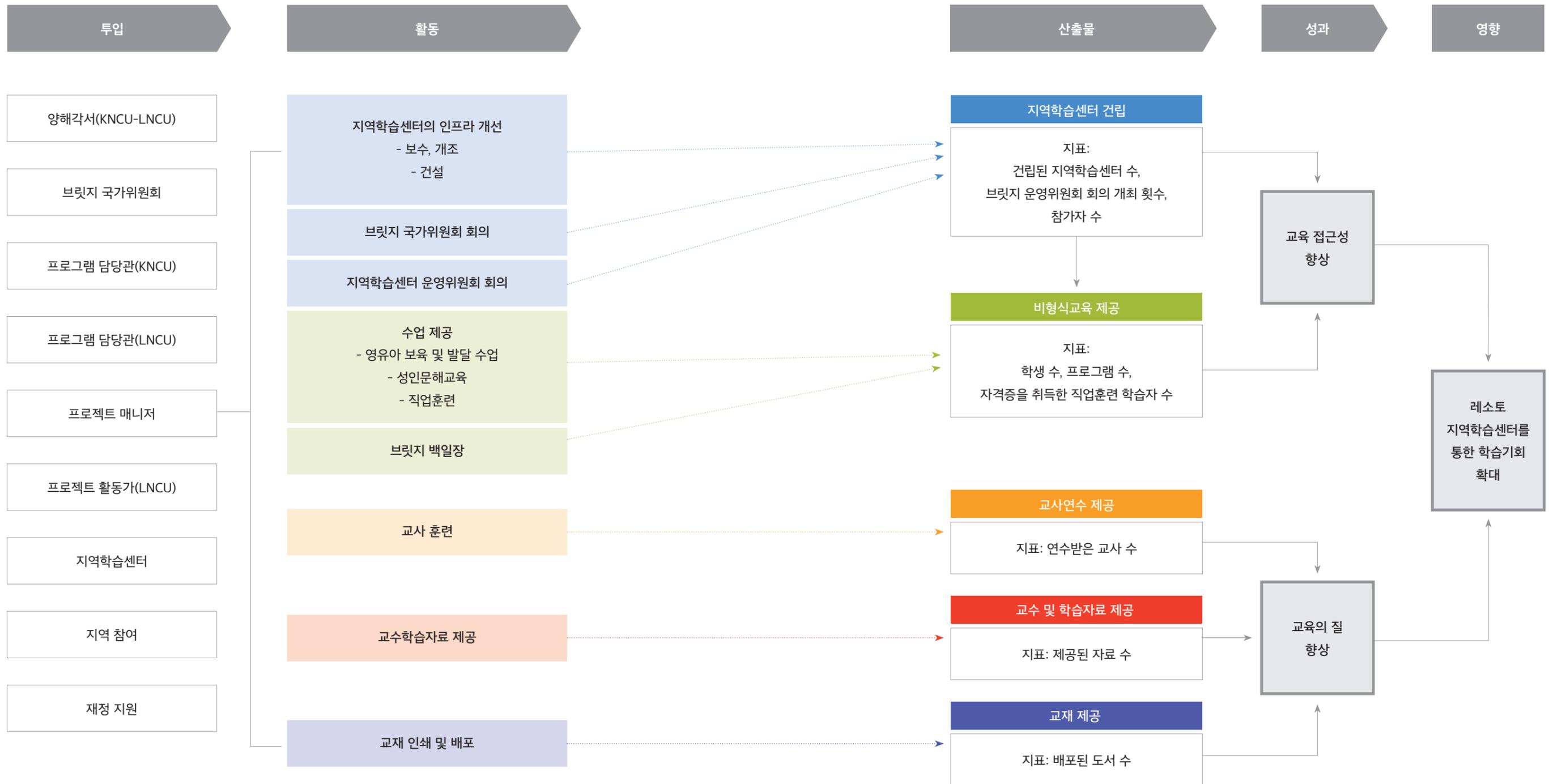
브릿지 레소토 프로젝트는 레소토의 지속가능발전목표 4번 달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궁극적으로는 레소토 내 형식교육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지역사회 차원에서 평생학습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브릿지 지역학습센터를 통해 이루어졌다. 지역학습센터는 영유아 보육 및 발달(ECCD) 교육, 성인문해 교육,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 iii. 브릿지 레소토 프로젝트의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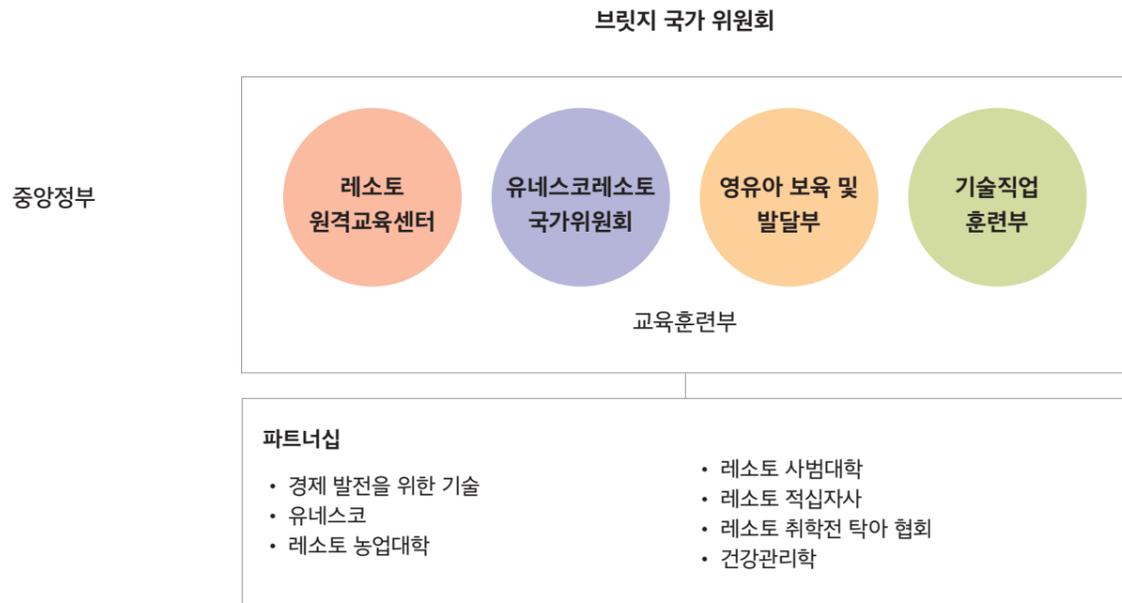
2016년 2월 말라위 릴롱웨에서 열린 2016 브릿지 아프리카 컨퍼런스에서 브릿지 아프리카 프로그램의 세 가지 원칙으로 지속가능성, 주인 의식, 그리고 자립성이 채택되었다. 유네스코레소토위원회는 브릿지 레소토 프로젝트의 실행에 있어 이 세 가지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레소토 교육훈련부의 영유아 보육 및 발달과(ECCD UNIT), 레소토 원격교육센터(LDTC), 기술직업훈련(TVD)부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이처럼 관련 정부 부처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레소토 이해관계자들에게 프로젝트를 이양한 후에도 프로젝트가 장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이다. (아래 ‘브릿지 레소토 프로젝트 기간 및 프로젝트 이양’ 참조). 또한 프로젝트에 대한 지역사회의 주인 의식 및 자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6년에는 여러 부처와 분야를 아우르는 실무 그룹으로서 브릿지 국가위원회(BNC)가 조직되었다. 국가위원회는 브릿지 레소토 프로젝트의 활동이 레소토의 국가 교육전략과 일치하고 현지 상황에 부합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나아가, 지역 주민들은 강력한 지역사회 중심의 프로젝트 접근방식을 통해 지역학습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대해 주인 의식을 갖게 되었다.

### iv. 브릿지 레소토 프로젝트 기간 및 프로젝트 이양

브릿지 레소토 프로젝트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유네스코레소토위원회가 2013년 10월 23일에 체결한 양해각서(MOU)에 기반하여 두 국가위원회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2010년부터 시행되었다. 해당 양해각서의 효력은 5년으로, 2018년 10월 22일에 종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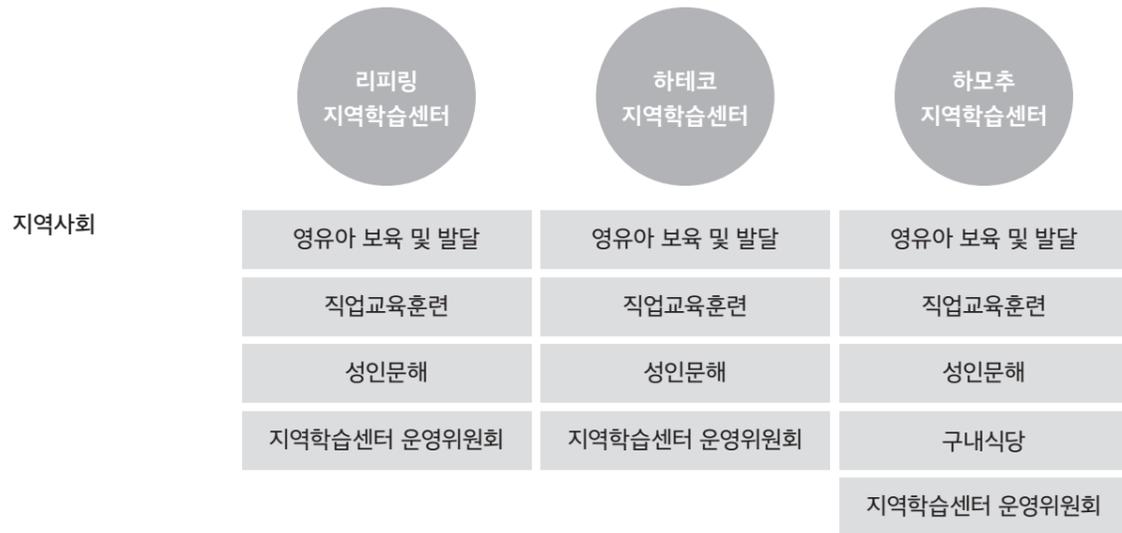


VI. 이해관계자들 간의 관계



**지방정부**

- 마페팅 교육청
- 모할레스후크 교육청



2. 레소토 브리짓지 지역학습센터 소개

레소토에 위치한 세 곳의 브리짓지 지역학습센터는 교수학습 자료의 제공과 현지 지도자, 지역학습센터 운영위원, 교사의 역량 개발 연수를 통해 지역학습센터 주변 농촌 및 지역사회의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비문해율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어 왔다.

이 세 곳의 브리짓지 지역학습센터는 현재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아동 교육 서비스를 전문으로 제공하는 하모추 지역학습센터는 급식 프로그램을 위한 급식소도 운영한다. 마을의 지도자들은 각 마을의 센터 운영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해당 센터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기도 한다. 세 센터는 영유아 보육 및 발달 수업, 성인문해교육,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하며, 지속가능성과 자립 역량을 제고하고자 소득 창출 활동도 펼치고 있다.

2018년 8월 현재

분류	리피링 지역학습센터	하모추 지역학습센터	하테코 지역학습센터
건립연도	2012	2013	2015
위치	리피링 (모할레스후크)	하모추 (타바보시우)	하테코 (마세루)
마을 지도자	매리 라보로코 (Ms. Mary Raboroko)	맘페사 모추 (Ms. Mampesa Motsu)	세차바 레로톨리 (Mr. Sechaba Lerotholi)
프로그램	남성 학습자 수	여성 학습자 수	총 학습자 수
현지 코디네이터 수	1	1	1
영유아 보육 및 발달 교사 수	1	2	2
문해교육 교사 수	1	1	1
직업교육훈련 교사 수	2	1	1
영유아 보육 및 발달 교육 학습자 수	9	46	70
문해교육 학습자 수	13	22	7
직업교육훈련 학습자 수	10	16	13

## IV. 성과

### 1. 브릿지 레소토 프로젝트의 역사: 2010-2018년 주요활동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브릿지 레소토 프로젝트 개시</li> <li>● 한국인 활동가 마을로 파견</li> </ul>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피링 지역학습센터 개소</li> </ul>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모추 지역학습센터 개소</li> </ul>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네스코레소토위원회에 프로젝트 매니저 파견</li> <li>● 하테코 지역학습센터 개소</li> <li>● 하모추 현대그린푸드 급식소 개설(급식 프로그램)</li> <li>● 영유아 보육 및 발달 교사를 정부 급여 대상자로 등록</li> </ul>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 브릿지 아프리카 컨퍼런스(「릴롱웨 성명」)</li> <li>● 브릿지 국가위원회 설립</li> </ul>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센터의 교육활동을 국가자격 시스템과 연계(직업교육훈련 및 문해 인증)</li> </ul>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브릿지 지역학습센터의 영유아 보육 및 발달 학습자를 정부 급식 대상에 통합</li> <li>● 브릿지 레소토 프로젝트 이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레소토 정부의 세 개소 지역학습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활동에 대한 지속가능성 보장</li> </ul> </li> </ul>

### 2. 양적 성과

연도	센터	교육활동 기회			교육의 질 향상	
		영유아 발달교육	성인문해 교육	직업기술 훈련	연수 받은 교사의 수	인쇄 및 배포된 도서 수
2010	-	NA	5	NA	NA	NA
2011	-	9	70	27	6	56
2012	리피링	9	NA	16	3	NA
2013	리피링	200			1	NA
	하모추					
2014	리피링	50	20	66	16	2,118
	하모추					
2015	리피링	249			9	NA
	하모추					
	하모추					
2016	리피링	155	39	NA	23	-
	하테코					
	하모추					
2017	리피링	147	23	37	17	380
	하테코					
	하모추					
2018	리피링	125	42	29	-	-
	하테코					
	하모추					
합계		1,316			75	2,554

\* NA: 해당사항 없음

### 3. 브릿지 레소토 프로젝트와 지속가능발전목표, 아프리카연합 의제, 아프리카대륙 교육전략 16-25간의 연계

아프리카연합 의제 2063은 2013년에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이 반세기 후 2063년까지 달성하기로 합의한 일곱 가지 범아프리카 장기 목표이다. 2015년 9월 제70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그 맥락을 같이하나 지속가능발전목표보다 더 장기적인 관점을 취하는이 의제는 특히 청년과 여성에 대한 통합된 투자를 통해 인구 통계학적 배당을 활용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아프리카 국가들이 다음과 같은 과제에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 인적 동원과 아프리카대륙 프로그램에 대한 주인의식; 자립 원칙과 개발에 필요한 재정적 독자성 확보; 모든 수준과 모든 영역에서 유능하고 포용적이며 책무성 있는 국가와 기관의 중요성; 모든 개인, 정부 및 기관의 결과에 대한 책임.

#### 아프리카연합(AU) 의제 2063 - 우리가 원하는 아프리카를 위한 포부

- ① 포용적 성장과 지속가능발전에 기반한 번영의 아프리카
- ② 범아프리카주의의 이상과 아프리카 르네상스 비전을 기반으로 정치적으로 통합된 대륙
- ③ 굿 거버넌스, 민주주의, 인권 존중, 정의, 법치주의의 아프리카
- ④ 평화롭고 안전한 아프리카
- ⑤ 강력한 문화 정체성, 공동 유산, 가치 및 윤리의식을 지닌 아프리카
- ⑥ 아프리카인, 특히 아동을 보호하고, 여성과 청년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국민이 발전을 주도하는 아프리카
- ⑦ 강하고, 통합되고, 회복력과 영향력을 갖춘 국제사회의 행위자이자 파트너로서의 아프리카

2016-2025년 아프리카대륙 교육전략(CESA 16-25)은 10년 간의 포괄적 대륙 교육전략으로, 아프리카가 지속가능발전 목표 4번(SDG 4)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에 호응하여 수립한 것이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러한 전략을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 4번이 아프리카의 포부에 부합하게 만들고자 노력한다. CESA 16-25는 이전의 어느 교육 전략 체제보다 더 나은 결과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모든 이해관계자와 행위자가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긍정적인 주체성을 발휘할 자유를 가질 것을 제안한다.

브릿지 아프리카 프로그램은 동 사업에 참여한 아프리카 국가의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사무총장들이 2016년 릴롱웨에서 열린 브릿지 아프리카 컨퍼런스에서 서명한 「릴롱웨 성명」에 따라 지속가능성, 주인의식, 그리고 자립의 3가지 원칙을 채택했다. 이 원칙들은 CESA 16-25 및 의제 2063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브릿지 레소토 프로젝트는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고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SDG 4를 추구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영유아 보육 및 발달(ECCD)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에게 양질의 영유아 발달교육, 보육 및 취학 전 교육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초등교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SDG 4.2)
성인문해 교육	“2030년까지 모든 청소년과 상당수 성인 남녀의 문해력과 수리력 성취를 보장한다.” (SDG 4.6)
성인문해 교육	“2030년까지 취업, 양질의 일자리나 창업에 관련되는 직업기술 등을 지닌 청소년과 성인의 실질적인 수를 늘린다.” (SDG 4.4)

### 4. 지역학습센터의 시사점과 성과

레소토 브릿지 아프리카 프로그램은 정부의 지원이 미치지 못해 교육받을 권리를 비롯한 기본적인 수요의 충족이 어려운 농촌 지역의 모든 취약/빈곤 계층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해당 지역의 교육을 개선하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

#### 1. 영유아 보육 및 발달(ECCD)

영유아 보육 및 발달 분야는 브릿지 레소토 프로젝트가 지역에 가져온 이점이 특히 두드러지는 분야이다. 지역학습센터 개소 첫 해의 영유아 보육 및 발달 수업 등록률과 비교했을 때 학생수 역시 상당히 증가해 점점 더 많은 아동이 혜택을 받고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하모추 지역학습센터에서는 그 등록자 수가 12명에서 70명 이상으로 증가했다. 주된 이유는 영유아 보육 및 발달수업을 위한 시설이 개선되었고, 학습자들에게 영양가 높고 균형 잡힌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는 급식소도 개설되었기 때문이다. 레소토 정부는 영유아 보육 및 발달을 적극 지원해 왔으며, 브릿지 레소토 지역학습센터는 현재 정부로부터 부분 지원을 받는 지역학습센터 기반 유치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영유아 보육 및 발달교사는 정부로부터 급여를 받고, 교사 대상 현장 연수도 수료할 수 있기에 수업의 질을 보장할 수 있다.

- 지역학습센터의 영유아 보육 및 발달 교사를 위한 일련의 연수 워크숍은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했다. 해당 워크숍을 통해 교사의 교수법과 수업 운영에 관한 역량이 향상되었고, 장애 아동, 아동 보호, 아동 건강 및 영양 등의 문제에 대한 교사 이해도도 높일 수 있었다.
- 지역학습센터를 보다 아동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해 세 개 지역학습센터에 각각 놀이터, 식수 및 위생 시설이 설치되었다. 또한 아동권리 보호에 관한 자료를 제작해 교사, 학부모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배포했다.

- 2016년부터 하모추 지역학습센터의 영유아 보육 및 발달 프로그램의 학습자들은 매일 영양가 있는 아침과 점심을 제공받고 있다. 이 급식 프로그램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는 현대그린푸드(Hyundai Green Food Company)의 재정 지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이후 2018년 레소토 정부에 인수되어 레소토 내 브릿지 지역학습센터 세 곳 모두로 확대되었다.



① 현대그린푸드가 지원하는 급식 프로그램  
 ② 2017년 11월 시행된 영유아 보육 및 발달교사를 위한 현장 연수 프로그램

## II. 성인문해교육

- 세 개 지역학습센터의 문해력 수업을 통해 레소토의 많은 남녀 청소년과 성인들이 현지 언어인 세소토(Sesotho)어로 기초 문해력과 수리력을 습득했다. 이들 지역학습센터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레소토 원격교육센터(LDTC)와 협력해 문해 교사 양성 워크숍을 개최했으며, 수업에 사용할 여러 교과서와 교재를 개발, 배포하기도 했다.
- 지역사회의 더 많은 구성원들이 기초 문해 및 수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마을에서는 여러 차례의 공개 모임이 열렸다. 지역학습센터 문해 교사와 지역 코디네이터도 가정 방문을 실시해 예비 학습자들이 정기적으로 수업에 참석하도록 독려했다.
- 레소토 원격교육센터(LDTC)는 문해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잠재적 학습자들이 프로그램에 등록하도록 독려할 또 다른 방법으로 전국의 라디오 방송국을 통해 방송될 라디오용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하모추 지역학습센터에서 진행되는 성인문해교육

### III. 직업교육훈련(TVET)

재봉과 가죽공예 분야에 도입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은 앞으로도 더욱 많은 학습자를 유치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학습자들의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등록률을 높이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는 이전까지 다른 교육을 받았던 교육사업 수혜자들은 받은 교육의 수준에 관련없이 어떠한 형태의 자격증도 취득할 기회가 없었던 반면, 해당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수강한 학습자들은 정부에서 발행한 국가 자격 제도를 통해 공식 자격증을 취득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 지역사회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2017년에는 지역학습센터에 직업훈련반이 개설되었다. 기술직업훈련부(TVD)와의 협력 아래 다양한 직업훈련에 대한 수요조사가 실시된 이후 하모추 지역학습센터와 하테코 지역학습센터에는 가죽공예교실이, 리피링 지역학습센터에는 재봉교실이 도입되었다.
- 직업훈련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기술직업훈련부와의 협력을 통해 가죽공예사와 재봉사를 위한 일련의 현장 연수 워크숍이 조직되었다. 직업훈련 강사와 교육생들을 위한 현지어로 된 훈련 매뉴얼도 제작 및 배포되었다.
- 지역학습센터에서 훈련받은 학습자들은 가죽공예 또는 재봉기술에 관한 공식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2017년에는 가죽공예 수업을 받은 학습자 11명과 재봉 수업을 받은 학습자 7명이 직업시험에 합격해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 자격증은 레소토의 임시 자격 제도에 따라 정부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학습자가 더 나은 급여를 받거나 창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브릿지 레소토 프로젝트는 여성도 수업에 참여하도록 독려해 직업훈련 수업의 성별 격차를 없애는 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전통적으로 남성의 직업으로 여겨져 온 가죽공예 수업 실습생 중 절반이 여성으로 채워졌고, 재봉 수업 실습생도 대부분 여성으로 구성되었다.



① 하모추 지역학습센터의 직업교육훈련 학습자  
 ② 2018년 9월 교육훈련부가 수여한 직업시험 자격증을 취득한 브릿지 지역학습센터 학습자들

### IV. 주요 관계자 인터뷰

#### 영유아 보육 및 발달(ECCD) 교사



제 이름은 볼레랑 코모아차나(Bolelang Khomoatsana)입니다. 저는 레소토 사범대학(Lesotho College of Education)에서 공부해 영유아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고, 2015년 졸업 후 하테코 지역학습센터에서 영유아 보육 및 발달 교사로 일했습니다. 다른 어떤 영유아 보육 및 발달 학교보다 많은 교수학습자료가 있는 이 학습센터에서 수업을 진행하게 된 것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풍부한 교수학습자료는 학습자들에게도 축복인지라, 마을에 다른 영유아 보육 및 발달 학교도 두 곳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를 우리 학습센터에 보내고 싶어 합니다. 영유아 보육 및 발달 수업 학습자의 부모들은 수업 운영을 매우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센터를 청소하고 정부의 급식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채소밭을 만들었으며, 추가 수업자료를 구입하고 창문 수리 등 교실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도록 매달 20말로티(maloti)를 기부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저는 여러 연수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교수법과 수업 운영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고, 나아가 학습자들에게 보다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종종 이웃 초등학교 교사들로부터 우리 영유아 보육 및 발달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학교에서 매우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저는 우리 졸업생들이 학교에서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교사, 의사, 엔지니어 등 미래에 무엇이든 그들이 원하는 모습이 되어 우리 지역 사회와 이 나라에 기여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문해 교사



제 이름은 이투멜렝 모아롤리(Itumeleng Moahloli)로, 하테코 지역학습센터에서 문해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4년 지역사회 모임에서 처음으로 브릿지 레소토 프로젝트에 대해 들었고, 전남대학교 학생들과의 문해교류 프로그램과 같은 이 프로젝트의 다른 활동에 자원했었습니다.

그 후 하테코 지역학습센터의 문해수업 교사로 선발되었는데, 교사로 제가 태어나고 자란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하테코 지역학습센터에서 문해 교사로 일하면서 가장 의미 있었던 때는 브릿지 백일장이 열렸던 2016년 이었습니다. 행사 기간 동안 문해교육 학습자들은 주어진 주제에 대해 글을 썼고, 최종적으로 3명의 학생이 최고의 이야기꾼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모아 책으로 만들고, 2016년에 세계 문해의 날을 기념하며 출간했습니다.

저는 문해 교사가 되어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는 법을 포함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었고, 이를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준 브릿지 레소토 프로젝트에 감사를 표합니다.

## 문해 학습자



제 이름은 마볼로코아 몰레렐키(Mabohlokoa Moleleki)이며, 현재 나이는 31세입니다. 저는 2018년 3월부터 하테코 지역학습센터에서 문해 수업을 들었습니다. 풍족하지 못한 유년시절을 보냈던 저는 공부를 더 하고 싶었지만 6학년을 마친 뒤에는 학업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결혼을 한 후에도 늘 공부를 계속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느라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하테코 지역학습센터의 야간 문해 수업 덕분에 학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에 참여하기 시작한 후 일상 생활에서부터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어려운 세소토어 단어도 쉽게 읽고 쓸 수 있게 되었고, 친구들과 영어로 더 유창하고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업을 통해 갖추게 된 기초 수리 능력은 시장에서 물건을 사면서 돈을 셀 때 매우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해 수업이 앞으로의 공부를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또 저와 같은 학습자들을 위한 중학교 과정과 레소토 중등교육 자격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앞으로 이러한 과정에 지원하고 자격증을 취득해 더 나은 직업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 직업훈련 교사



제 이름은 모차마이 은체베(Motsamai Ntsebe)로, 하모추 지역학습센터와 하테코 지역학습센터에서 가족공예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타바체카 기술학원(Thaba-Tseka Technical Institute)에서 가족공예를 배웠었는데, 제 스승님께서 제가 가르치는 일에 열정이 있음을 발견해주시고 저를 기술직업 훈련부의 레소토 브릿지 프로젝트 가족공예 강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프로젝트의 가족공예 강사가 된 것은 제게 정말 큰 행운이었습니다.

저는 수업에서 가족공예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정말 좋아하고, 가족공예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열심히

학생들을 보는 것도 큰 기쁨으로 느낍니다. 아직 생계 유지에 필요한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청년들이 대부분인 가족공예 학습자들은 추후 기술을 배워 창업을 하고 가족 제품을 판매하고 싶어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수업 시간에 만든 가족 제품을 시장에 팔아 그 수익을 수업 자재와 도구를 사는데 재투자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 12월에 우리 수업의 학습자 11명이 가족공예 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것은 정말 기쁜 일이었습니다. 자격증을 신청한 가족공예 학습자들이 모두 합격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가 가족공예 수업을 시작한 이래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를 통해 기획한 다양한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제 가족공예 기술과 강의 능력을 향상시키게 된 것도 무척 기쁩니다. 특히 지역학습센터 교사들과 브릿지 국가위원회(BNC) 위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고 프로젝트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한 2017 브릿지 전국 워크숍(Bridge National Workshop)이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 꿈은 우리 센터의 학습자들과 가족 제품 가게를 차려, 레소토 전통 가족 제품을 여러 나라에 판매하는 국제적인 회사로 키우는 것입니다.

## 직업훈련 학습자



제 이름은 레첼레하 마케타(letse'leha Makhetha)로, 나이는 24세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직장을 구할 수 없어서 집안일을 돕고 있었던 저는 2017년 3월부터는 재봉반에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이 동네에는 과거의 저처럼 일 없이 집에만 있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적절한 기술 없이는 좋은 직업을 구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재봉 수업은 우리 마을의 이러한 많은 젊은이들이 집에서 나와 생산적인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꿈은 패션디자이너가 되어 다양한 옷과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저만의 가게를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의 지역학습센터에서 재봉교실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매우 기쁘고 설렐었습니다. 우리 마을은 산악 지대에 위치해 있어 겨울에 매우 춥기 때문에 겨울에는 수업에 나오지 않는 학습자들도 있지만, 저는 항상 최선을 다해 수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2월 재봉 공인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 때가 수업을 듣기 시작한 이래로 저의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뿌듯하고 스스로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나중에는 대학에 들어가 패션 디자인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이 자격증도 대학에 지원할 때 큰 장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학습센터 재봉교실 덕분에 제 꿈이 꼭 이뤄지리라 믿습니다.

## 마을 수장 (촌장)



저는 하모추 마을의 수장 맘페사 모추(Mampesa Motsu)입니다. 우리 마을에 지역학습센터가 건립된 후 저는 교육으로 변화한 마을 사람들의 삶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문해교실 덕분에 많은 지역 주민들이 읽고 쓸 수 있게 되었고, 직장도 없이 집에만 머물렀던 많은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가족공예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브릿지 레소토 프로젝트는 단순한 교육 활동 그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젝트 덕분에 정부 및 기타 개발기관들이 우리 지역사회를 알게 되고 우리의

발전을 지원해 줄 수 있었습니다. 적십자사는 마을에 상수도를 설치해 주었고, 정부는 간선 도로에서 마을로 이어지는 도로를 보수해주었으며 복숭아 나무도 100그루 증정해주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학습센터가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전기를 설치해 줄 것을 지방 정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저는 우리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강한 주인의식을 지니고 지역학습센터를 운영해준 것을 몹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영유아 보육 및 발달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학부모들은 급식 프로그램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채소밭을 관리했고, 지역 주민들은 학습센터를 청소하고 시설을 유지 및 관리해 주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그렇게 우리 지역사회 구성원들 간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브릿지 레소토 프로젝트에 10월까지만 참여한다는 점이 안타깝지만, 저와 우리 지역 주민들은 이후에도 지역학습센터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 IV. 주요 관계자 인터뷰

##### 지역학습센터 현지 코디네이터



저는 하모추 지역학습센터에서 현지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는 몰레트사네 세바사(Moletsane Sebasa)입니다. 레소토국립대학교에서 소비자학을 전공한 저는 지역학습센터 교육 활동과 영유아 보육 및 발달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급식 프로그램을 담당하게 될 코디네이터를 뽑는 면접에서 브릿지 레소토 프로젝트를 처음으로 접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하모추 지역학습센터에서 코디네이터로 근무하면서 직업교육훈련과 문해 교실 학습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목격해 왔습니다. 이는 센터를 적절히 관리하고 운영한 결과였습니다. 또 지역학습센터의 일상적인 교육 활동에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참여하는 것도 보기 좋았습니다. 이는 지역사회를 평화롭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아마 집에서 지루해하는 청년들이 범죄에 가담하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브릿지 레소토 프로젝트는 영유아 보육 및 발달 교육, 문해교육,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필수적 교육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지역사회의 기둥이자 선박이자 닻이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개인적으로도 브릿지 프로젝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지역학습센터는 현재 예상보다도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역시 지역학습센터 운영자로서 지역학습센터가 영원히 유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 IV. 주요 관계자 인터뷰

##### 브릿지 국가위원회(BNC) 위원



제 이름은 농사 음팔라미(Nomsa Mpalami)입니다. 레소토 원격교육센터에서 비형식교육 담당자로 일하고 있는 저의 주요 임무는 문해교육자료를 개발하고, 문해 교사를 양성하고, 기초문해 및 기능문해에 관한 라디오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2015년 9월, 저는 한국에서 훈련 워크숍에 참가했습니다. 당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브릿지팀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브릿지팀과의 논의 도중 레소토 소재 3개 지역학습센터를 모니터링하는 일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었습니다. 그 과제를 맡게 된 것이 정말 기뻐던 저는 가까이 브릿지 프로젝트의 일원이었던 다른 동료들과 합류했습니다. 그 후로 브릿지 국가위원회는 재정적인 부분을 비롯해 다방면으로 프로젝트를 지원해주었습니다. 모니터링, 훈련 워크숍을 통한 문해 교사의 역량 강화, 학습을 향상시킬 학습자료의 제공 등은 브릿지 국가위원회의 기금 제공 덕분에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다른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은 또한 회원들 간의 상호 우정과 업무관계 개선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센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고 있으며, 친구들과 주변 지역사회에 자신의 발전을 위해 센터를 이용해보라고 조언할 수 있습니다.

2016년에는 우리 문해 학습자들이 백일장에 초대받아 매우 값진 시간을 보냈습니다. 백일장에서는 주어진 주제에 대해 글을 쓰는 과제가 주어졌는데, 약 6명의 학습자가 최고의 이야기꾼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들 학습자들의 글을 모은 책은 이후 2016년 10월 7일 국제 문해의 날(ILD) 행사 기간에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을 꼽자면 학습자의 읽기 및 쓰기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이원화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도 말할 수 있습니다.

지역학습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을 통해 운영위원들은 지역학습센터 건물을 점검하고, 정해진 날짜에 수업이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교사의 학습자 모집을 지원하는 등 주인의식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운영위원들은 또한 문해 교육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센터에서 공개 모임, 캠페인 같은 활동 등을 추진해 문해 교사들을 지원했습니다. 이런 활동은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협력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향후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브릿지 국가위원회는 지역사회가 브릿지 프로젝트를 자신이 낳은 아이처럼 돌보며 프로젝트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항상 센터의 혜택을 보게 될 지역학습센터 주변의 지역사회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보여준 사랑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 V. 교훈

### 1. 지역사회의 강한 주인의식

지역사회의 강한 주인의식은 브릿지 레소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구현하는 열쇠가 되었다. 프로젝트 초기에는 각 지역사회 촌장들이 지역학습센터 건립을 위해 부지를 제공했고, 많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지역학습센터 건물의 건립을 기꺼이 지원했다. 지역사회는 또한 지역학습센터 교실과 시설을 자발적으로 청소하고 유지, 관리했다.

각 마을에 지역학습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지역학습센터에 대한 주인의식을 고취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촌장, 지역 주민들과 교사들로 구성된 각 지역의 운영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만나 지역사회가 지역학습센터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브릿지 국가 워크숍에서는 마을의 촌장과 대표가 지역학습센터 교사들과 함께 프로젝트의 연간 활동 계획을 수립하는 데 참여하기도 했다.

세 지역사회 모두에서 영유아 보육 및 발달 학습자들의 부모는 매달 20렌드(rand)씩을 기부했다. 기부금은 추가적인 수업자료를 구입하고 교실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었다. 지역사회는 또한 급식 프로그램을 돕기 위해 지역학습센터에서 채소를 재배하기도 했다. 2017년 브릿지 국가위원회 위원 중 레소토의 비정부기구인 테드(Technology for Economic Development, TED) 소속의 한 위원은 하모추 마을과 하테코 마을이 정부로부터 복숭아 나무를 기증받는 것을 지원했다. 복숭아 나무는 이후 열매를 맺으면 영유아 보육 및 발달 프로그램의 학습자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9월 브릿지 레소토 프로젝트 이양 워크숍에 참석한 리피링 마을 수장(발언자)과 위원(가운데)

### 2. 브릿지 국가위원회의 헌신

브릿지 국가위원회는 브릿지 레소토 프로젝트의 효과적 실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브릿지 레소토 국가위원회는 영유아 보육 및 발달, 비형식교육 및 직업교육훈련 분야와 관련된 정부 부처 및 기타 협력기관에서 선출된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국가위원회 위원들은 정기적으로 만나 지역학습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에서 프로젝트의 영향을 확대하는 방법을 논의한다. 2015년 레소토 브릿지 국가위원회가 조직된 후 9차례의 분기별 회의가 있었다. 국가위원회 위원들은 또한 지역학습센터가 지역 사회에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역학습센터를 정기적으로 방문하기도 했다.



브릿지 국가위원회 회의

브릿지 국가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위원회가 브릿지 교육 프로그램과 국가 교육시스템 간의 가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지역학습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이 해당 국가의 교육시스템과 일치할 때 학습자는 프로그램의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술직업훈련부(TVD)와의 긴밀한 협의로 가족공예와 재봉이 지역학습센터의 직업훈련과목으로 채택된 덕분에, 이 과정을 이수한 학습자들은 관련된 기존의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또한 영유아 보육 및 발달 분야에 종사하는 브릿지 국가위원회 위원들의 노력 덕분에 영유아 보육 및 발달 수업이 정부의 교육시스템에 등록되기도 했다. 이에 영유아 보육 및 발달 프로그램의 학습자들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브릿지 국가위원회는 또한 지역학습센터 교사들과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수 워크숍을 조직해 지역학습센터 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 데에 필요한 핵심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각 영역의 전문가인 국가위원회 위원들은 프로그램 기획, 경쟁력 있는 강사들의 고용, 강사 대상 워크숍의 진행에 참여하며, 교과서와 교수학습자료의 개발을 지원하고 지역학습센터 교사들에게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지역학습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공개 모임 및 지역학습센터 모니터링 등을 통해 지역학습센터 운영에 참여하도록 권장하기도 한다.

### 3. 영유아 보육 및 발달에서 통합적 접근

영유아 보육 및 발달은 단순히 아동 교육에만 연관되는 것이 아니라 보육, 발달, 아동 건강 등의 문제도 포괄한다. 모든 아동은 안전한 환경에서 놀고 배울 권리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브릿지 레소토 프로젝트는 영유아 보육 및 발달에 대해 통합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

하모추 지역학습센터와 하테코 지역학습센터에는 화장실이 개설되었으며, 아동의 건강과 위생을 위해 각 지역학습센터에는 수도시설이 설치되었다. 또한 브릿지 레소토 프로젝트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민간기업(현대그린푸드)과 협력해 하모추 지역학습센터에서 급식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다. 현재 레소토 정부와 함께 운영중인 이 프로그램은 영유아 보육 및 발달 프로그램의 학습자들에게 매일 영양가 있는 아침과 점심을 제공한다.

영유아 보육 및 발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습자들의 학부모들은 급식 프로그램이 시작된 후 더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모습으로 변한 자녀들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 하모추 지역학습센터 영유아 보육 및 발달 프로그램 학습자들의 학부모들은 교육훈련부 영유아보육발달과(ECCD Unit)와 협력해 개최한 음식과 영양 워크숍(Food and Nutrition Workshop)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를 위해 균형 잡히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준비하는 법을 배우기도 했다. 아동 친화적인 학습센터를 만들기 위해 지역학습센터 세 곳 모두에 놀이터가 지어졌다. 놀이터는 아이들이 친구들과 어울려 놀면서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이루는 것을 도와준다. 또한 지역학습센터는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제고를 위해 아동 권리에 관한 동화책을 배포하기도 했다.

### 4. 지역학습센터 간 지식 및 경험 교류

브릿지 전국 워크숍은 이해관계자들 간의 상호학습을 증진하기 위해 매년 개최된다. 이 워크숍은 교사, 마을 촌장, 지역사회 대표 및 지역학습센터 현지 코디네이터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지역학습센터 운영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2018년 9월, 사흘간 제4회 브릿지 전국 워크숍이 열렸다. 워크숍 기간 동안 리피링, 하모추, 하테코 세 지역학습센터에서 온 참가자 23명은 지역학습센터 운영의 성과와 어려움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차원의 실행 계획을 수립했다. 각 지역학습센터의 현지 코디네이터들은 상호학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동료학습을 목적으로 다른 지역학습센터를 방문하기도 했다. 이러한 방문을 통해 코디네이터들은 다른 지역학습센터의 수업에 참가하고 이해관계자들과 회의를 가졌고, 이후 하테코 마을과 리피링 마을은 하모추 지역학습센터를 따라 정부 급식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채소밭을 만들었다.



2018년 9월 제4회 브릿지 전국워크숍

## VI. 감사의 말씀



팔레사 몬치  
사무총장

### 1. 팔레사 몬치(Palesa Montsi) 유네스코레소토위원회 사무총장의 메시지와 평가

저는 이 자리에서 저를 비롯한 레소토 왕국의 국민들을 대신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통해, 또 대한민국 교육부를 통해 브릿지 아프리카 프로그램의 기초 자금을 제공해주신 대한민국 국민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브릿지 레소토 프로젝트는 한국과 레소토의 오랜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양해각서를 통해 2010년 레소토에 도입되었습니다. 해당 양해각서는 2016년에 갱신되었습니다.

비록 양해각서는 2018년에 종료되었지만, 우리는 특히 교육 부문에서 여러 중요한 목표를 달성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레소토의 비문해 퇴치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학습센터를 열어 유엔과 유네스코의 여러 우선 과제를 다룬 브릿지 레소토 프로젝트는 2010년부터 모두를 위한 교육 달성에 힘써 레소토에 전례 없는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레소토가 기쁘게도 “취약아동 및 소외아동을 위한 영유아 보육 및 교육의 포괄적인 확대와 개선”이라는 첫 번째 목표의 달성에 상당한 성과를 이루어낸 데에는 브릿지 아프리카 프로그램과 같은 이니셔티브가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브릿지 아프리카 프로그램은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을 달성하고자 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 4번을 이루는 것에 직결됩니다.

브릿지 아프리카 프로그램의 종료와 함께 프로그램의 2018년 이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레소토 정부가 이미 교육훈련부를 통해 브릿지 프로젝트를 전부 정부 시스템에 통합하는 조치를 취했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세 개 지역학습센터의 영유아 보육 및 발달 수업은 정부 시스템에 통합되어 있기에 그 교사는 정부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모추 지역학습센터의 현대그린푸드 급식 프로젝트가 종료되었을 때도 정부는 하모추, 하테코, 리피링 마을에 소재한 지역학습센터의 아동 급식 업무를 인계받았으며, 교육부 역시 영유아 보육 및 발달 수업 교사를 위한 정기적인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문해 퇴치 및 직업교육훈련 과정에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는 것은 우리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재정적, 물리적 지원은 끝났지만, 이러한 노력을 통해 브릿지 프로젝트가 레소토의 소외된 지역사회에 가져다 준 영향력이 오래도록 지속될 것이라 믿습니다.



김광호  
사무총장

### 2.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김광호 사무총장의 메시지

소외된 이들을 위해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현지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역량 구축 과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브릿지 레소토 프로젝트는 유네스코가 교육 부문에서 내세우는 인권과 인간 존엄성 옹호의 목표에 크게 일치합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레소토의 양해각서가 종료됨에 따라 레소토는 앞으로 이 프로젝트를 전적으로 책임지게 됩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지역학습센터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유망하고 지속가능한 조치를 개발하고 시행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신 관련 정부 당국과 지역사회를 포함한 레소토의 프로젝트 이해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레소토로 파견한 8명의 한국인 활동가 및 프로젝트 매니저들은 프로젝트가 시행된 레소토의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지역 주민들의 문화와 교육 수요를 파악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브릿지 프로젝트를 통해 레소토 농촌 지역의 교육 기회 확대에 기여할 뿐 아니라 레소토의 사람과 문화에 대해 배울 수도 있었습니다. 브릿지 레소토 프로젝트는 출범 이래로 지역사회와 정부, 지역사회와 지역사회, 그리고 협력국과 협력국 간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지난 8년 간의 시간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이 프로젝트가 꾸준히 발전해 나가길 바랍니다.

저는 브릿지 레소토 프로젝트가 앞으로도 그들의 삶에 필수적인 교육에 접근할 수 없는 이들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촉매제로 기능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 이번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두 국가위원회의 우정이 더욱 돈독해지기를 기대합니다.

브릿지 레소토 프로젝트에 보내주신 모든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또한 이 장기 프로젝트의 수행에 큰 헌신을 보여주신 유네스코레소토위원회에도 특별한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와 함께 행운을 빕니다. 키아 레보하(Ke a leboha)!

## ◆ 부록

### 1. 브릿지 프로젝트 활동가 및 프로젝트 매니저 명단

이름	직책	활동기간
김문주	프로젝트 활동가/매니저	2010년 10월 - 2016년 3월
고권혁	프로젝트 활동가	2010년 10월 - 2012년 10월
김유선	프로젝트 활동가	2010년 10월 - 2011년 11월
이상일	프로젝트 활동가	2012년 3월 - 2012년 10월
김다현	프로젝트 활동가	2014년 3월 - 2014년 12월
주교진	프로젝트 활동가	2014년 3월 - 2015년 12월
최슬기	프로젝트 매니저	2016년 4월 - 2017년 1월
권상순	프로젝트 매니저	2017년 3월 - 2018년 10월

### 2. 브릿지 프로젝트 활동가 및 프로젝트 매니저 인터뷰

#### 프로젝트 활동가/매니저\_김문주



제 이름은 김문주로, 레소토에 있을 때는 '리네오'(‘선물’이라는 뜻)라는 이름도 받았었습니다. 저는 2010년 10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브릿지 레소토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공부를 마친 직후인 2010년에 브릿지 아프리카 프로젝트 활동가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활동가로 일한 첫 2년 간은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지역의 자원을 파악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었습니다. 이후 2013년에는 같은 프로젝트의 코디네이터로 임명되었고, 2014년에는 프로젝트 매니저를 맡아 리피링, 하모추, 하테코 마을에서 신규 프로젝트 현장을 구축하고, 자원 봉사자들의 활동을 감독하고, 세 개 지역학습센터를 건립하고, 이해관계자 회의, 지도자 연수, 문해 교사 연수 워크숍 등을 주최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브릿지 아프리카 프로젝트의 첫 번째 한국인 대표로서, 레소토에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맡을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시작한 프로젝트는 지역사회의 교육의 질 및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해냈습니다. 레소토의 지역사회들 간에 이루어진 훌륭한 협력 관계를 지켜보며 저는 개발도상국의 농촌 지역사회가 지속가능하고 의미 있는 개선과 발전을 이루는 데에 필수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에 프로젝트와 그 개발 계획에 따라 구축된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관계를 관찰하고자 이후에도 6년 동안 레소토에 머무르기도 했습니다.

프로젝트의 큰 성과 중 하나는 모든 지역학습센터를 레소토 정부에 등록한 것입니다. 이것은 교사 급여, 학교 급식 프로그램 및 훈련 워크숍이 정부의 개입, 지원, 참여를 통해 제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브릿지 레소토 프로젝트는 농촌의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룰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지역사회가 이러한 자체 프로젝트를 지속하는 데에는 정부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두 개의 서로 다른 조직이 세운 계획을 하나의 목표로 발전시키는 것이 늘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브릿지 아프리카 프로젝트는 다른 국제 개발 프로젝트와 비교해 보아도 협력 기구 간의 상호 이해와 존중이 특징적이었는데, 이러한 특성 덕분에 훨씬 원활하고 효과적인 협업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장 성공적인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상향식이면서 협력적인' 접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유네스코레소토위원회와 레소토 지역사회에 하고 싶은 말

여러분이 제게 보여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레소토가 매우 그립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하면서 레소토의 개발 문제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의 교육과 바소토 지역의 발전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Kea leboha bo mme le bo ntate ka lerato leo le ileng la mponentsa lona. Ke ntse ke hopotse Lesotho haholo. Ke ithutile li ntho tse ngata ha ke sebeditse le lona litabeng tsa tsoelopele ea Lesotho. Ke tla thabela ho tseba ho re le ntse le sebetsa hantle ho ntlafatsa thuto ea bana le sechaba sa Basotho.



저는 2017년 3월부터 브릿지 레소토 프로젝트의 매니저로 근무했던 권상순입니다. '태양'을 뜻하는 '레차치(Letsatsi)'로 지은 제 세스토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저는 항상 제 삶이 소외된 취약계층의 빛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브릿지 레소토 프로젝트는 그러한 삶을 가능케 해준 기회였습니다. 덧붙이자면, 일을 시작했을 때는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서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해 본 저의 경험이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에 큰 자산이 될 것이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저는 주로 브릿지 레소토 프로젝트의 기술, 재정, 행정 관리를 담당하며 정부, 비정부기구, 지역사회의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프로젝트 활동을 기획하거나 조정, 실행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저는 교사, 지역 코디네이터, 지역학습센터 운영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일련의 연수 워크숍을 조직해 지역학습센터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 교과서와

교수학습자료의 제작, 교실 개량과 세 지역학습센터에의 놀이터 설치와 같은 시설 개선 작업 등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여러 활동들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학습센터의 학습 프로그램을 국가 교육 정책, 체계 및 교과과정에 맞추기 위해 정부 대표로 브릿지 국가위원회에 참여한 위원들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직업훈련반 학습자들이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국가위원회 회의에서는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이 늘 최우선 의제로 거론되어 왔습니다. 저와 다른 국가위원회 위원들 모두는 지역학습센터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가능성에 관련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또한 프로젝트와 관련된 국가위원회 위원들과 기타 이해관계자들 간에 수많은 개별 회의가 오가기도 했습니다. 일이 늘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는 놀라운 진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선, 이미 정부 시스템에 등록된 영유아 보육 및 발달 수업을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한 2017년 12월 종료된 현대그린푸드의 급식 프로그램을 인계받아 세 개소 지역학습센터의 아이들에게 매일 급식을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나아가 지난 레소토 교육훈련부 고위급 회의에서는 문해교육반과 직업훈련반을 정부 교육시스템에 통합하는 방안이 관료들 사이에서 긍정적으로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팔레사 몬치 유네스코레소토위원회 사무총장님과 티에호 랭크혼(Tieho Rankhone) 브릿지 프로그램 담당관님의 강력한 지원이 없었다면 브릿지 레소토 프로젝트가 이렇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말레로호놀로 마샤파(Malehlohonolo Mashapa) 브릿지 국가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브릿지 국가위원회 위원분들이 보여주신 프로젝트에 대한 열정과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또한 지역학습센터의 교사와 현지 코디네이터, 그리고 세 개 마을의 지역학습센터 운영위원회와 마을 촌장님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동료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와 함께 일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키아 레보하(Kea leboha)!